



## 기생충전시관 관람 후기

정미영 · 동그라미유치원 교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많이 오염되어 있다. 그만큼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점점 많아지고 날씨가 변하면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질병도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서 감기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자주 걸리는 병이다. 감기가 걸렸을 때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증세를 통해서 자각하고 병원을 가거나 금세 대처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예고될 수 있는 증상이 없는 병일 경우에는 그리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어렵다. 그래서 어떤 병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고 예방책을 숙지함으로써 사람들은 병을 피해 가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욱 신경이 쓰이게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문제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함은 좋은 생각이며 살아가는데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중에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센터에서 기생충에 대해서 전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하는지 교육하고 있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생충을 보고 느낄 수 있게 견학하기로 하였다. 아이들도 자신에게 어떤 경우에 질병이 생기며 여러 가지 대처 방안에 대해 경험해 보면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았다.

아이들은 아침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선생님! 우리 언제가요? 견학이요!” 하고 묻는 말에 이렇게 말한다.

“조금 있으면 곧 가게 된단다” 아이들은 참새 같은 입으로 또다시 물어 온다.

“오늘 정말 기생충 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와 같은 질문에 난 이렇게 다시 말한다.

“선생님도 궁금한걸, 우리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볼까?”

아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한 다음 오늘 견학에 대해 말하였다.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번쩍 들고 몸에 나쁜 것이 묻은 것, 배를 아프게 하는 것 등이라고 말을 한다. 아이들은 기생충이 몸에 안 좋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생충을 견학에서 어떤 것들을 볼 지 생각해 보고 직접 보았을 때의 느낌을 견학 후에 한 번 말해 보자하고 유치원에서 출발하였다.

건강센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 쪽 벽면에 커다란 기생충 모자이크 그림이 있었다. 아이들 모두 그림을 보면서 ‘기생충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 번도 기생충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않고 신기하게 보고 또 보았다. 유리관 속에 기다란 실처럼 생긴 것이 기생충이냐고 계속 물으면서 꼭 소세지 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다. 다른 동물의 몸 안에서 실타래처럼 웅크리고 있는 기생충의 모



“손발을 깨끗이 씻어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꼭 손을 닦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야채를 꼭 씻어서 먹어요, 고기를 익혀 먹어요, 약을 먹어요”

습을 흥미롭게 보았다. 기생충이라는 것이 다른 생물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빼앗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몸에도 과연 있을까 생각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진지해졌다.

기생충은 요충, 십이지장충, 회충, 편충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종류에 따라서 감염되는 경로가 모두 달랐다. 특히 요충이 감염 되었을 때 항문이 간지러울 수 있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무척 놀라했다. 선생님이 항문이 혹시 간지러운 아이들이 있는지 손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웃음으로 화답하였다.

아이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 때마다 다시 묻고 확인을 하였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푹푹푹 눈물을 선생님의 얼굴에서 떼지 못했다. 건강센터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하여 주시느라 조금은 바쁘셨지만 성심 성의껏 이야기해 주어 아이들도 선생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그렇게 전시관을 둘러본 후 기생충에 감염되고 주의해야 할 점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고 깨끗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재미있는 드라마도 보았다. 아이들이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무엇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보았는지 무척 궁금했다. 유치원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오늘 본 기생충에 대해서 입을 모으고 있었다. 서로 기생충의 모습이 너무 길다, 우리 몸에 있으면 기

분이 나쁠 거다, 내 몸에도 있을까? 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 서로의 말에 수긍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치원에 도착해서도 우리가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 보았더니 “손발을 깨끗이 씻어요,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고 꼭 손을 닦아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야채를 꼭 씻어서 먹어요, 고기를 익혀 먹어요, 약을 먹어요” 등의 대답을 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기생충을 멀리 할 수 있도록 집과 유치원에서 이런 약속을 잘 지키자고 했더니 교실이 떠나가라 “네~”하고 대답을 하였다. 이렇게 견학을 끝내고 점심을 먹으려고 준비하였다.

그 때 아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 기생충! 기생충!”

“안 닦으면 너 몸 안으로 들어간다.”

정말이지 아이들은 대단하다. 보고 듣고 느낀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다. 어른들도 행동까지 옮기기가 무척 힘든데 아이들은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니 말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예방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좀더 청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람되고 뿌듯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무척 흐뭇했다. ☺